

목포시 '통합돌봄 365' 첫발...체계 정교화 과제로

시행 한달여 95건 중 81건 승인
 일상 생활·건강관리 지원 수요 ↑
 인력 부족으로 주민센터 업무 가중
 10월 신규 배치...특화사업 박차

목포시가 야심차게 도입한 맞춤형 복지 정책이 시행 한달을 맞으며 가시적인 연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본격 시행된 '목포돌봄 365' 사업은 지역 내 보건 의료, 건강 관리, 요양, 일상생활, 주거 지원 등 5개 분야 42개 세부 사업을 하나로 연계해 제공하는 복지 시스템이다.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노후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올해 총 6억1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남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95건으로, 이중 86%인 81건이 지원 대상으로 최종 판정됐다. 실제 서비스 연계는 48명에게 총 220건이 제공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분야별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건강관리 지원이 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일상생활(27%), 기타(22%), 보건 의료(10%), 주거 지원(8%), 요양(3%) 순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생활 밀착형 돌봄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담 인력의 부족에 지난해 말 전남 공무원 총원 승인을 받았으나 실제 신규 인력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기 전까지는 기존 복지 인력이 돌봄 업무까지 떠맡게 돼 실무진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여기에 사업 내용과 대상자 기준에 대한 시민

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아직 부족해 체계적인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다양한 돌봄 욕구 존재하는 장애인 대상 사업의 경우 현장 상황을 반영한 더욱 세밀한 실행 계획 보완이 요구되며,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낼 명확한 역할 정립도 과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단순한 시혜성 복지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유기적인 연대가 필수적인 정책인 만큼, 초기 체계 정비와 인력 보완 여부가 향후 사업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

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장구를 설치하고 실무자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전남 공무원 채용 절차를 서둘러 오는 10월경 현장에 전면 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직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춘 통합돌봄 체계를 완성해 나갈 것"이라며 "현재 지역 의사·한의사와 손잡고 방문의료지원, 퇴원환자 연계, 병원 동행 등 10종의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영암군, 저출산 극복 모자보건 정책 강화

중위소득 100% 첫째아 기저귀 지원

영암군이 저출산 극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저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밀착형 모자보건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27일 영암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저귀 구입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 둘째아'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첫째아' 가정까지 전면 확대했다.

영아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매월 9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수혜 가구는 기존 30%에서 70% 수준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모유 수유, 애착 관계 형성 등 맞춤형 양육 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임력 검진비,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산후조리비 지원 등 임신부터 출산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가동 중이다.

이희숙 군보건소장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출산 친화적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함평 나비대축제 놀이터 '나빛파크' 인기몰이

AR·AI 곤충 관찰 등 관람객 호응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막에 맞춰 새롭게 문을 연 맞춤형 복합 놀이공간 '나빛파크'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며 축제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축제 개막과 함께 개장한 나빛파크는 기존 전시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실외 놀이시설과 실내 에듀테인먼트를 결합한 체험 중심 시설이다. <사진> 내부 1층은 정글짐, 트램폴린, 볼풀장 등 16개 아이템을 갖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신체활동 놀이터로 조성됐으며, 야외 공간 역시 구름다리, 짚라인 등을 설치해 활기찬 활동을 지원한다.

2층은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체험 공간으로 꾸러졌으며, 곤충을 3D로 확대 관찰하거나 직접 그린 그림이 화면에 구현되는 라이브 스케치 체험이 가능하다. 또한 홀로그램을 활용해 함평군의 관광 캐릭터인 뽀빠·젤리도·구르비를 생동감 있게 구현



하고, 함평을 대표하는 나비도 함께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2층에서 1층으로 바로 내려오는 대형 미끄럼틀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해 호응이 높다.

함평군 관계자는 "나빛파크는 놀이와 학습을 결합해 축제 콘텐츠를 다변화한 혁신적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 기자



강진 작천면, 유희 시설 '주민 소통방' 활짝

주민자치회·이장단 협력 결실

강진군 작천면에 오랜 기간 방치됐던 유희 공공시설이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소통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작천면은 최근 주민자치회와 이장단 등 마을 주민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소통 공간 조성을 기념하는 뜻깊은 환영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사진> 이 공간은 과거 소방파출소로 사용되다 최근까지 작천면 자율방범대 창고로 쓰이는 등 활용도가 현저히 낮았던 시설이었다.

그러나 작천면사무소가 마을 주민들의 소통 활성화 의지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새 옷을 갈아입었다.

특히 이번 소통방 개소는 지역 주민자치회와 이장단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일궈낸 성과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자연스럽게 모여 다채로운 마을 현안과 정보를 공유하고,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진정한 의미의 '열린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작천면 관계자는 "군에 달여 있던 공간이 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참여의 무대로 다시 열리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이 소통방이 작천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든든한 중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군은 '2026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핸드메이드 초코디저트 만들기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섬마을 청소년 '성장지원' 돕는다

인구감소지역 자립 역량 강화

7월까지 AI 로봇 등 수업 다채

신안군은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다양한 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7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역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진로 탐색과 자립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2026년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들의 사전 수요를 적극 반영

영해 평소 섬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다채로운 실습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러졌다. 특히 학생들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관내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밀착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특화 프로그램은 오는 7월10일까지 자은 초등학교와 하의중학교 등 총 6개 기관에서 12회에 걸쳐 28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초코 디저트와 마카롱 만들기 등 요리 실습부터 테라리움 원예 활동, AI 사족보형 로봇(스텝봇)을 직접 조립해 보는 미래 과학교실까지 초·중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진로 체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타 지역 청소년들과의 폭넓은 교류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센터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소속 청소년 20여명은 오는 5월29일 여수에서 열리는 '제22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견학하며 최신 진로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섬마을 청소년들이 제약 없이 다양한 경험을 쌓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청소년들이 고향에서 꿈을 키우고 정착할 수 있는 튼튼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 기자

영광군 '반값 심표여행' 지역상권 활력

영광군이 체류형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반값 여행 지원 사업 '영광 심표여행'이 전국적인 관심 속에 흥행을 기록하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7일 영광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인 이번 프로그램이 지난 11일 시작된 이후 신청자가 폭주하며 4월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

현재는 여행을 마친 관광객들의 현금 정산 신청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심표여행은 여행 경비의 일부를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로, 관광객들에게는 비용 절감 혜택을,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실제 관광객들은 "환급받은 상품권으로 다시 영광을 찾겠다"고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밀러드는 타지 관광객 덕분에 숙박·외식업계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도 독특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에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품권 결제 편의를 위한 QR 가맹점 가입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영광군 관계자는 "심표여행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어 보람이 크다"며 "관광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인분들의 신속한 QR 가맹점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무안군, 어르신 '찾아가는 재택의료' 운영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공모 선정

의료진 등 맞춤형 통합진료 제공

무안군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서비스를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의료 복지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27일 무안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6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지역 의료기관인 한국의원과 공동 참여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최근 협업형 전담팀 구성을 마치고 현장 진료에 돌입했다. <사진> 이번 사업은 한국의원 의료진과 무안군보건

소 소속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전담팀을 이뤄 움직인다.

거동이 불편하고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 우선)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통합진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전담팀은 지난 22일 첫 방문 진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으며,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요양 시설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익숙한 자택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송미영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촘촘한 지역 자원 연계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무안=김상호 기자